

(주)원퍼스트, IoT 근태관리 시스템 ‘타임원’ 출시

(주)청봉건설(대표 문범석) 자회사인 (주)원퍼스트(대표 하대수)가 최근 근태관리시스템인 ‘타임원’을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특허출원된 ‘타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IoT를 기반으로 한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만 하면 출근이 표시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카드나 지문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은 현장 출근 시 줄서서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카드의 경우 대리로 찍게 되면 출근으로 표시돼 본사에서는 정확한 출퇴근 관리에 애로가 있고, 지문인식의 경우 일일이 지문을 찍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현장마다 근로자 카드 발행 및 카드 인식 단말기, 지문인식기 도입 등 제반 장비가 필요하다.

원퍼스트의 ‘타임원’은 카드 등록기 및 지문인식 단말기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이 현장에 ‘현장태그’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또한 출근 시간에 근로자가 집중될 경우 줄서서 체크할 필요가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출근이 기록되는 능동형 근태관리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근태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가 내장된 스마트폰에 최초 1회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 주면 된다.



원퍼스트(www.nokeyone.com)는 고객관리 솔루션 제작부터 원격제어 도어락 “노키원”을 이용한 출입통제 시스템까지 토탈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발/컨설팅 전문회사이다. 하대수 대표는 “시스템을 바꾸면 현장이 투명해진다”며 “원퍼스트는 관리자에게 비용절감 및 현장을 불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판되기 시작한 타임원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타임원 기능 및 장점

■ 간단한 설치

- ‘현장태그’ 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 발행, 지문인식기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음
- 지문이나 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고 카드 등 소모품이 없어서 경제적

■ 쉬운 근태 체크

- 현장에 오게 되면 앱에서 자동으로 해당 현장만 나타남. 개인 스마트폰에 내재된 GPS 위치 추적기능과 블루투스 기능에 의해 따라서 현장에 오지 않고서는 출/퇴근 체크가 되지 않음
- 외근 시 원격으로 퇴근 처리 가능

■ 현장 인증 기능

- 사진 : 출근한 직원들의 사진이 매일 기록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본인 여부를 간단히 검증할 수 있음
- 휴대폰번호 : 일용직이 당일 출근을 하더라도 본인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 등록 가능(휴대폰 번호로 근태 관리 가능)

■ 본사에서 간편한 관리 가능

1. 관리자 전용 프로그램

근태현황과 통계를 관리자가 본사에서 실시간 조회

2. 쉬운 현장(사무실) 관리

현장태그 하나만 사무실에 붙이면 설치 완료 (인터넷과 추가 장비 불필요)

3. 통합 노무비 계산

개인별 시간/일당/월급 형식 급여 계산,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력

4. 직원관리/휴가관리

근무자를 현장, 공종, 직종 단위까지 분류, 휴가 및 출장까지 관리 가능

5. 일자별 근퇴 현황

일자별로 출/퇴근한 시간과 횟수 조회 야근 및 지각/조퇴까지 체크됨

6. 조회된 내용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출력 및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7. 일보기능

현장의 업무사항 및 이슈 등을 본사에 빠르고 편리하게 보고

IOT(사물인터넷)란?



사물인터넷은 세상 모든 물건에 통신 기능이 장착된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각 기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교통상황,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나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대표적이다.

